



우즈베키스탄은 유목과 기마민족의 독특한 전설·신화의 배경이 되는 드넓은 초원과 평야를 보유하고 있다. 18일 우즈베키스탄의 수도 타슈켄트 외곽에 있는 양기를 치노즈 마을 평원에서 마을 주민이 양떼와 소를 몰고 가고 있다. /타슈켄트=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문화 원석’ 이야기 보물창고를 열다

아시아 문화원류를 찾아서

1 프롤로그

타슈켄트=윤영기 기자

“그의 강철 투구가 덜컹거리네. 코 빨소 가죽으로 만든 방패가 소리를 내는구나. 다이아몬드 검과 청동으로 만든 갑옷 장식이 딸그랑 거리고, 등자(발걸이)가 찰랑거리네. 말이 몸을 파르르 떨면서 콧김을 뿜어내네.”(우즈베키스탄 영웅 알파미시)(Alpamysh)의 전투장면). 우즈베키스탄 콘트라트 부족의 영웅 ‘알파미시’가 아랍해를 중심으로 펼쳐진 드넓은 초원지대에서 속적과 건곤일척의 승부를 벌이는 상황을 묘사한 장면이다. 지금으로부터 1000년 전 인물이 주인공인 영웅 서사시 ‘알파미시’가 부족을 위기에서 구한다는

아시아인의 삶·역사·사랑의 파노라마 애프터로드 대장정 우즈베키 시작

내용이 열개로, 기마민족의 독특한 정서를 투영한 복수, 사랑, 권선징악 등 인간사의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덴마크 출신 미래학자 롤프 옌센(Rolf Jensen)은 저서 ‘드림 소사이어티(dream society)’에서 “앞으로는 꿈과 감성, 이야기를 파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갈파했다. 정보화시대에 이어 ‘이야기 자원 전쟁시대’ 즉, ‘콘텐츠 전쟁의 시대’로 돌입, ‘팔 수 있는 이야기를 가진자’가 세계시장을 지배한다는 것이다. 아시아는 ‘21세기의 이야기 보물 창고’다. 세계 4대 문명 발생지 중 2 곳을 보유하고 있는 아시아에는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전설, 신화, 설화, 민담을 비롯해 건국신화 등 스토리의 광맥이 널려있다. 그리스, 로마 전 인물이 주인공인 영웅 서사시 ‘알파미시’가 부족을 위기에서 구한다는

면서 상상력의 한계를 드러낸 서양과는 대조적이다. 아시아에서 ‘상품 가치’가 있는 이야기는 각국에서 손꼽은 것만 해도 1000개가 넘는다. 모두 영화, 드라마, 게임, 캐릭터, 애니메이션 등에 활용될 원자재다. 몽골, 카자흐스탄, 일본, 인도 등 아시아 어느 곳을 가더라도 보석처럼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다. 광주에 세워지고 있는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은 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이야기의 보석’을 깨어 광주를 명실상부한 ‘아시아 문화중심도시’로 만들고, 문화산업을 일으키는 원동력으로 삼으려는 작업을 시작했다. 광주일보사는 오는 2014년 아시아문화전당 개관에 맞춰 흥미진진한 ‘아시아 이야기’를 찾아나선다. 창사 60주년을 맞아 대기획물로 연재하는 ‘아시아 문화원류를 찾아서’는 중



우즈베키스탄 국민화가 무바라크 울다 시예브가 그린 ‘알파미시’(Alpamysh)의 초상화.

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에서부터 시작되는 ‘아시아 스토리 로드(Story road)’ 여정이다. 아시아인의 역사, 삶, 사랑, 문화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질 흥미진진한 여행에 독자 여러분을 초대한다. /penfoot@kwangju.co.kr 3면으로 계속

알림



광주일보 더 풍성해집니다

정확한 보도, 균형잡힌 논평으로 지역민의 사랑을 받은 광주일보가 20일로 창사 60년을 맞이합니다. 1952년 옛 전남일보로 출발해 1980년 언론통합조치에 따라 광주일보로 제호를 바꾼 이래 한결같이 정통과 권위의 호남제일 종합일간지의 지위를 지켜온 본보는 보다 충실하고 유익한 지면으로 독자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광주일보 모든 임직원은 독자 여러분의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19일과 20일자를 창사 60주년 특집호로 꾸몄습니다.

‘아문화수도 광주’ 3대 기획시리즈

1. 아시아문화 원류를 찾아서-중앙아시아에서 시베리아까지, 만주에서 수마트라섬까지 광대무변 아시아의 수많은 문화원형들을 탐사하는 대기획시리즈가 3년의 여정으로 시작됩니다. ▶19일자 1-3면
2. 세계의 문화수도 파리 오디세이-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문화를 향유하는 파리, 철학과 음악, 미술과 사랑이 넘치는 파리의 모든 것을 촘촘히 취재합니다. 파리생활 3년차인 본지 정성필 객원기자의 재기 넘치는 문장으로 꾸며집니다. ▶19일자 12면
3.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성공프로젝트-문화전문인력이 필요합니다. 시민들의 문화 향수 역량이 더 길러져야 합니다. 세계인을 사로잡을 광주만의 ‘킬러 콘텐츠’가 필요합니다. 문화선민기자 박진현이 제안하는 정밀한 프로젝트들이 준비되어있습니다. ▶20일자 14면

됩니다. 첫 기사는 불어난 인도양의 수면에 위협받는 몰타이트 제도의 오늘. ▶20일자 16면

광주·전남 근대화 탐사

통감부와 총독부 기록을 비롯, 미군정청과 초대정부 치하의 광주 전남지역 근대화 사료를 모두 모았습니. 도시의 형성, 가교와 상하수도, 중요시설의 배치, 그를 둘러싼 갈등과 환호들을 흥미진진하게 연재합니다. ▶19일자 11면

세계인의 해양축제 여수엑스포

여수 세계박람회 울가이드, 중요 볼거리와 숙박 교통 먹거리 정보. ▶19일자 컬러 8개면 색선

광주일보 60년, 광주 전남 60년

광주 전남의 역사를 상징하는 수백만장의 사진과 주요 연재물을 소개합니다. ▶20일자 컬러 8개면 색선

光州日報社

中 방문 박준영지사 오늘 시진핑 만난다

중국을 방문중인 박준영 전남지사가 중국의 차기 최고 권력자로 사실상 확정된 시진핑(習近平) 국가부주석을 만난다.

전남도는 박 지사가 19일 오후 4시 베이징(北京) 인민대회장에서 시 부주석을 만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국 국가 부주석이 외국 지방자치단체장을 만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이들의 만남은 이번이 4번째다. 이번 만남은 특히 시 부주석이 중국 차기 최고권력자로 낙점을 받아온 상태에서 이뤄진데다 박 지사도 대관도전 의사를 가지고 있어 더욱 눈길을 끈다. 이들의 각별한 우정은 지난 2005년 전남도가 중국 저장성(浙江省)과 자매결연을 맺으면서 시작됐다. 당시 저장성 당서기로 있던 시 부주석이 먼저 전남도를 방문하자 박 지사가 11월 답방형태로 저장성을 찾았다. 2007년에는 박 지사가 여수엑스포 유치 협력을 위해 상



지난 2007년 7월 18일 투자유치를 위해 중국을 방문한 박준영 지사가 당시 상하이시 당서기였던 시진핑과 담소를 나누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하이시 당서기로 옮긴 시진핑과 만나 상하이시 재개발 계획지구에 포함된 상해임시정부 청사 준치를 부탁해 성사시키기도 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두 사람은 이번에 1시간여 동안 만날 예정이지만 특별한 의제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 “순전히 서로간의 인연과 친분때문에 이뤄지는 사적인 만남”이라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합리적인 전기사용으로 행복한우리가족



전기에너지 절약 녹색성장의 시작입니다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전력 소비가 매우 높으며, 불필요한 전력 소비는 연료 수입을 증가시키며 국가적인 손실로 이어집니다. 전기절약,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전기에너지 절약, 국민 경제를 위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 우리나라의 지난 10년간 전력소비 증가율은 연평균 5.3%로, OECD 주요국가인 일본 0.2%, 독일 0.6%, 미국 0.7%, 영국 0.1%에 등 다른나라에 비해 훨씬 높습니다.
- 생산원가보다 낮은 전기요금으로 인해 전력소비량이 급증하여 국가적인 에너지 손실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